

디스플레이, 부진 깨고 호조 전망...

2014년 3/4분기 TV패널 가격하락 불구 ... UHD TV 수요 증가로

현대증권은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며 수익성이 여전히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.

LG디스플레이는 3/4분기 TV패널 가격이 10% 수준 하락함에 따라 타이완·중국의 패널 생산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가가 9월에만 14% 수준 급락했다.

현대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“최근 디스플레이주의 주가 하락을 매수기회로 삼아야 한다”며 “TV패널 가격 하락에도 LG디스플레이는 다변화된 고객기반과 제품구성으로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또 국내 패널 생산기업들의 영업실적이 2014년 1/4분기부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시장 특성상 IT기업들은 3/4분기를 정점으로 1/4분기까지 영업실적이 악화되지만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패널 생산기업들은 2014년 1/4분기 영업이익이 2013년 4/4분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김동원 연구원은 “TV패널 재고조정이 일단락되는 시기에 UHD(Ultra High Definition) TV의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의 신규 TV 보조금 정책, 준절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0/08>